

K-반도체, HBM 투자 경쟁… 110조 자체재원·40조 상장조달

〈삼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47조 현금성 자산 보유
내부재원 중심 투자기조 이어가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
최태원 회장 “증설투자 지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증설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 방식에서 다른 길을 택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으로 40조원을 확보해 국내 생산시설에 투입하고 삼성전자는 자체 현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 경쟁이 기술력을 넘어 투자 자원 확보 경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나스닥에 상장해 265억달러(약 40조 원)를 조달했다. 회사가 공시한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르면 조달 자금은 전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P&T) 건설,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확보 등 시설 투자에 투입된다.

추가 조달 기반도 마련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예탁증서 서류(F-6)를 통해 이번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로 출국하고 있다.

물량의 10배인 17억8000만주 규모의 ADR 전환 한도를 사전 등록했다. 향후 증설 단계마다 추가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상장 직후 “반도체가 예전 같은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확대 능력을 능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메모리 수요가 이어지는 한 증설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상시 조달 창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내부 자원 중심 기조

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ADR 상장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외부 자원을 조달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147조 3800억원으로 SK하이닉스(54조원)를 크게 웃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를 상장에 해외 기관투자자의 거래 통로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미국 상장 없이도 자금과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난 10일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나스닥 ADR 거래 개시를 알리고 있다. /SK하이닉스

셈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사상 최대인 110조원 규모의 시설·연구개발(R&D) 투자를 자체 재원으로 집행한다. 지난달 말에는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030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도 발표했다. 메모리 업황이 부진해도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이 이익을 방어하는 사업 구조를 갖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양사가 자원 확보에 나선 배경에는 대규모 투자 경쟁이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 상장 하루 전인 지난 9일

2035년까지 미국 내 공장 기술 투자를 2500억달러(약 37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하워드 러트너 미국 상무장관은 같은 날 마이크론 뉴욕 공장 착공식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어야 한다”며 양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사로서는 국내 증설 재원에 더해 미국 투자 요구까지 감안해야 필요한 투자 규모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투자 부담이 커질수록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의 차이도 뚜렷해진다. 이 때문에 양사의 상반된 자금 조달 전략은 HBM 경쟁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메리츠증권 등 증권가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최소 2027년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설 재원을 먼저 확보해 생산능력(캐파)을 늘린 기업이 주도권을 쥌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단위가 수십조원대로 커지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기술 못지않은 경쟁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5대 금융지주, 상반기 포용금융 11.3조 공급… 목표치 초과달성

금융위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
지속가능한 실천방안 마련 방침

올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공급액이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포용금융 공급액은 2조3000억원의 자체 채무조정 및 1조5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이 포함된 금액으로, 당초 반기별 공급액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각 금융지주는 포용금융을 한시적 지원이 아닌 상시적 책무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진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제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공급 실적을 점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뉴시스

검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과 서민금융과장, 각 금융지주 별 포용금융 담당 임원이 향후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포용금융 공급 총액은 11조2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계에는 새희망홀씨, 중금리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취약계층 대출 공급액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공급액, 자체 채무조정 및 소각 등 연체채권 관리가 포함됐다.

각 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각 금융지주는 올해 1월 포용금융 실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포용금융 확대 방안도 공개했다.

KB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의 포용금융 공급 목표였던 17조원의 포용금융 공급액에 더해 3조5000억원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과 5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추가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포용금융 공급 목표치다.

신한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의 포용금융 공급 목표를 15조원으로 설정했다. 연내 공급 목표액은 4조5000억원으

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평균금리 이하로 인하하는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소각을 통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공급액은 2조1000억원으로, 하반기에는 중·저신용자 전용으로 연 5.5% 금리 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을 적극 취급해 추가적인 포용금융 공급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의 포용금융 공급 목표인 7조4000억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조5000억원을 올해 추진 목표로 설정해 조기 공급한다. 올 상반기 개인 신용대출의 금리상한제와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소각으로 목표치 조기 달성을 앞

둔 만큼, 포용금융의 지속 공급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15조 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에 나선다. 농협금융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제한 상품을 출시하고, 지방이전 청년 전용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및 농업인 대출을 출시하는 등 맞춤형 상품 공급에도 힘쓴다. 올 상반기 누적 공급액은 2조1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포용금융 확대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도입 ▲전담 최고책임자 지정 ▲건전성 규제 합리화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체계를 구축한다. 각 금융지주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시적 책무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韓, 미래 스마트 제조 분야 국제표준 이끈다

국표원, SC65F 간사국 지위 확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M.AX) 시대를 맞아, 미래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이끌어갈 전담 조직의 운영을 우리나라가 맡게 됐다.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첨단 제조기술의 표준화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업자동화위원회(IEC TC65)’ 산하에 신설되는 ‘스마트제조 표준화위원회(SC65F, 이하 위원회)’의 간사국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위원회는 AI와 디지털 트윈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본격화된 ‘제조 AX

(M.AX)’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현실의 생산 공정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공장 ▲제조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연결하는 스마트제조 △AI를 활용해 제조공정을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자율제조 등 미래 제조 핵심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간사국 확보는 한국이 위원회 신설 논의 초기단계부터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표준 선도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설립 작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얻어낸 결실이다. 간사국은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위원회의 운영과 국제표준 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안정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막강한 지위

를 갖는다.

앞으로 국표원은 스마트제조 표준화위원회의 사무국을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조 분야 데이터, 제조 AI 운영·관리 기술 등 국내 핵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발 빠르게 발전시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간사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을 넘어 미래 제조산업의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보유한 M.AX 기술과 혁신 성과가 국제표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AI, 금융 핵심변수 부상… 성장방향 주목해야”

≫ 1면 ‘AI發 자산시장…’서 계속

주제 강연자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모두 우상향을 전망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는 특정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변수”라며 “미국의 AI 투자 확대와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맞물리는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 장기적인 성장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는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처럼 아파트도 쇼티지”라며 “아파트 공급 부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고점을 넘어섰고, 성

동구와 송파구는 전고점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까지 올라 다른 지역보다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해결 방법은 결국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자산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온체인 금융(On-chain Finance)’을 제시했다. 온체인 금융은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토큰 형태로 저장하고 거래하는 금융 시스템이다. 그는 “인류의 금융은 현물 거래에서 화폐, 장부, 전자금융으로 발전해왔고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주식과 채권, 국채, 금, 달러 같은 현실의 자산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발행·거래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